

	베트남(하노이) 해외사무소 해외동향보고서	작성팀	마케팅지원팀
		담당자	정 걸 기 소 장
		일 시	2024. 4.

CEPA Insight

- 올해 베트남 경제성장률 6.5% 가능"기획투자부 전망
- 베트남 소매판매 증가세 지속...1분기 612억달러 전년동기比 8.2%↑
- 베트남에 대한 FDI 자본, 계속해서 증가
- 베트남, 1분기 고용자수 5130만명...코로나19 이전 추세 회복

■ "올해 베트남 경제성장률 6.5% 가능"기획투자부 전망

- 베트남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인 6~6.5% 달성을 위한 2가지 시나리오를 제시
- 응웬 찌 응(Nguyen Chi Dung) 기획투자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 회의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인 6%와 6.5%에 대한 각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, 6.5% 달성을 목표로 경제계 애로사항 해소, 산업발전 촉진,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통화정책 운용을 제안
- 기획투자부의 시나리오는 1분기 경제성장률인 5.66%와 인플레이션 3.77% 유지를 전제로 한 것
 - ① 현실적 시나리오, 6.0% 성장
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, 이를 위해서는 남은 2~4분기 경제성장률이 각각 5.85%, 6.22%, 6.28%를 기록해야 함
 - ② 도전적 시나리오, 6.5% 목표
2~4분기 경제성장률은 6.32%, 6.79%, 7.08%으로 연간 성장률 6%에 비해서는 다소 도전적인 목표로 여겨짐

- 팜민찐(Pham Minh Chinh) 총리는 "올해 경제성장률 6.5%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는 가용한 모든자원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"고 강조

특히 중앙은행(SBV)에 ▲부실채권 모니터링 강화 ▲대출금리 추가인하 ▲경제계 대출접근성 개선 및 자본수요 보장 ▲환율·금가격 안정 등의 조치에 나설 것을 지시

관련기사 링크: <http://www.insidevina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7172>

■ 베트남 소매판매 증가세 지속...1분기 612억달러 전년동기比 8.2%↑

- 3월 204억달러, 여행서비스 매출 66.1% ↑ ...국내외 관광회복 본격화
- 베트남의 소매판매가 탄탄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5일 통계총국(GSO)에 따르면, 1분기 베트남의 상품소매·서비스 매출은 1530억동(612억달러)으로 전년동기대비 8.2% 증가. 이 가운데 상품소매 매출은 7% 증가한 1190조동(476억9540만달러)으로 전체의 77.4%를 차지
- 상품별 매출 증가율은 문화·교육용품이 17.7%, 가전·공구와 식품·식자재 각각 15%, 11.8%를 기록. 이밖에 의류와 차량(자동차 제외)가 각각 8%, 4.9%를 기록
- 서비스중에서는 숙박·케이터링서비스 매출이 174조8000억동(70억600만달러)으로 전년동기대비 13.4% 늘어났으며, 그외의 관광·여행서비스 매출이 14조1000억동(5억6510만달러)으로 46.3% 증가
- 한편 3월 상품소매·서비스 매출은 509조3000억동(204억1280만달러)으로 전월대비 0.5%, 전년동기대비 9.2% 증가

- 이중 식품·식자재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1.6% 증가했으며 가전·공구 16%, 의류 10.1%를 기록했다. 서비스 중에서는 숙박·케이터링서비스 매출이 15.8% 늘었고, 관광·여행서비스 매출이 66.1% 증가

관련기사 링크: <http://www.insidevina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7162>

■ 베트남에 대한 FDI 자본, 계속해서 증가

- 올해 첫 3개월 동안 베트남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 투자 자본은 거의 62억 달러에 달해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% 이상 증가
- 외국인 투자부(기획투자부)는 3월 20일 현재 644개 프로젝트의 총 신규 등록 자본금이 47억 달러이상에 달해 같은 기간보다 약 58% 증가했다고 밝힘
- 또한 데이터에 따르면 3월은 기존 프로젝트의 조정 자본 금액과 자본 기여 및 주식 구매 금액을 올해 첫 두 달보다 높게 기록했으며, 신규 투자프로젝트 수도 더 많음. 다만 대규모프로젝트가 많지 않아 이달 총투자자본 증가율은 2월에 비해 25%포인트 정도 줄었음
- 1분기 지출 자본금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% 이상 증가한 46억 달러를 넘으며 긍정적인 추세를 보였음. 1분기에는 거의 62억 달러에 달하는 FDI 자본이 베트남에 쏟아졌음.
- 제조 및 가공 산업은 여전히 FDI를 유치하는 주요 산업으로, 39억 달러 이상이 베트남에 유입되는 외국 자본의 거의 64%를 차지하였으며, 부동산과 소매업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음.

또한, 에너지(배터리 생산, 태양광전지, 실리콘바), 부품 생산, 전자제품 분야의 많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1분기에 신규 투자와 자본 확충을 받았음

- 파트너 측면에서 올해 첫 3개월 동안 62개 국가와 지역이 베트남에 투자했음. 싱가포르를 여전히 총 투자 자본이 25억 달러 이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, 이는 같은 기간동안 51% 이상 증가 수치임.
- 외국인투자부에 따르면 여전히 하노이, 호치민, 박닌, 꽝닌, 하이퐁 등 장점(인프라, 인적자원, 행정절차 개혁)이 많은 지역에 외국자본이 집중돼 있으며, 이는 전국 신규프로젝트의 거의 75%, 투자자본의 78%를 차지함.

관련기사링크: <https://vnexpress.net/von-fdi-vao-viet-nam-tiep-da-tang-4727297.html>

■ 베트남, 1분기 고용자수 5130만명...코로나19 이전 추세 회복

- 1분기 베트남의 고용시장이 코로나19 이전 일반적 추세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음.
- 1일 통계총국(GSO)의 '2024년 1분기 사회경제통계 보고서'에 따르면 1분기 고용자수는 전분기대비 12.7만명(0.25%) 감소한 5130만명으로 집계됐음. 앞서 코로나19 이전까지 베트남의 1분기 고용자수는 계절적 요인과 땃(Tet 설) 연휴 등으로 전년동기대비보다는 높지만 전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하는 흐름을 보임.
- 부문별로는 서비스업 고용자수가 40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산업·건설업과 농림어업이 각각 33%, 27%를 차지했으며, 이중 서비스업은 신규 취업자수가 50만여명으로 가장 크게 늘어난 반면, 산업·건설업과 농림업 부문은 감소했음.
- 1분기 전국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전분기대비 30만동(12달러) 오른 760만동(306달러)으로 집계됐음. 앞서 지난 2023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10%를 기록했던 임금증가율은 7.8%로 둔화되는 모습

을 보였고, 일반적으로 1분기는 신년 및 뗏상여금 등으로 소득이 일시증가하는 흐름이 이어져왔음.

- 지역별로는 메콩델타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동기대비 6% 증가한 690만동(278달러)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, 이중 동탑성(Dong Thap)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이 28.5% 증가한 820만동(330달러)으로 가장 높았고, 띠엔장성(Tien Giang)과 박리에우성(Bac Lieu)이 각각 790만동(318달러), 690만동으로 15%, 22.8% 늘었음.
- 반면 북부와 중부, 중부해안지역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대비 2.8% 증가한 660만동(265달러)으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며, 이중 탄화성(Thanh Hoa)은 680만동(274달러)으로 1.8% 증가한 반면 응에안성(Nghe An)은 580만동(233달러)로 0.5% 감소했음.
-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동기대비 15.3% 증가한 1200만동(483달러)으로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고, 이어 금융·은행·보험업이 12.7% 증가한 1300만동(523달러)을, 케이터링 및 숙박업, 물류운송업이 각각 730만동(294달러), 1050만동(604달러)으로 9.3%, 9.2% 증가율을 기록했음.

관련기사 링크: <http://www.insidevina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7111>